

M. Frisch의 ‘안도라’에서 先入見과 Identität의 問題

金 姬 烈

目 次

1.0 序 論	2.3 叙事的 技法 克服
2.1 社會心理學的 意味에서의 先入見	3.0 結 論
2.2 Identität의 問題	

1.0 序 論

M. Frisch의 ‘안도라’는 1961年 가을에 完成되어 그 해 11月 2日 Zürich에서 初演되었고, 이듬해에는 獨逸의 “뒤셀도르프, 후랑크푸르트, 뮌헨에서 1월 20일”¹⁾에 동시에 公演될 정도로 좋은 反應을 얻었다.

‘안도라’의 初稿라고 할 수 있는 散文이 1946年 日記에 ‘Der andorranische Jude’라는 題目으로 적혀 있다. 이 散文에서는 中心 人物이 猶太人으로 간주되는 어느 안도라人인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猶太人의 特性을 기대하고, 그는 유대인처럼 行動한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안도라 사람들은 그들이 추측했던 猶太人은 事實은 猶太人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猶太人의 特性이라고 했을 때, 특히 忌妬심이 많은 點을 強調한다. 그러나 이것은 反猶太主義에 대한 宣傳으로써 強調되어 온 것이며, 猶太人 迫害를 合理的으로 正當化시키는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이다.

Frisch는 이 日記에서 ‘Du sollst dir kein Bildnis machen’이라는 성경 句절을 引用해서 先入見에 사로잡히기 쉬운 人間 屬性에 대해서 지적한다.

“Du sollst dir kein Bildnis machen von Gott, und nicht von den Menschen, die seine Geschöpfe sind……: Gott als das Lebendige in jedem Menschen, das, was nicht erfaßbar ist. Es ist eine

1) Joachim Kaiser, Max Frischs Drama ‘Andorra’ in Zürich Uraufführt. In: hrsg. von Hans Mayer, Deutsche Literatur Kritik. B. 4, (Stuttgart 1971), S. 612. (:20. Januar 1962—von drei westdeutschen Bühnen zugleich unternommen wird, nämlich von Düsseldorf, Frankfurt und München.)

Verständung, die wir, so wie sie an uns begangen wird, fast ohne Unterlaß wieder begehen.”²⁾

‘Der andorranische Jude’에서는 한 猶太人 青年이 作品 中心이었는데, 61年 戯曲으로 完成된 ‘안도라’는 題目이 시사하듯이 안도라 사람들 전체, 즉 그들의 先入見과 誤解 그리고 이에 의해서 個人的 Identität가 破壞되는 點이 作品 中心을 이룬다. 그런데 안도라라는 이름에는 다소 論難의 여지가 있다. 안도라라는 地名은 실제 피레네 산맥의 小共和國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도라와 Schwarzen의 關係는 안도라는 小國, 즉 스위스이며 Schwarzen은 獨逸로서 히틀러 당시 나치군단이 猶太人을 가려낼 때 검은 服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關係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혹은 人種 迫害 問題를 다루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疑問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의 나라 안도라와 作品 ‘Andorra’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作家 自身이 밝혔듯이 ‘안도라’는 “모델로서 주어진 이름”³⁾이다. 문예학에서 모델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理念的 또는 物質的 構造로서 그것은 똑같이 않은 복잡한 原本의 構造 및 態도와 비슷하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원본에 직면해서 실제로 태도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⁴⁾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안도라’의 原本은 히틀러 지배 당시의 猶太人 迫害다. 동시에 이 作品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猶太人이 아니라 共產主義者 또는 資本主義者라든가 그 밖의 다른 누구라도 可能하며, 이 事件은 制限된 場所가 아니라 人間 社會이면 언제 “어느 곳에서”⁵⁾나 일어날 수 있다. Frisch가 ‘안도라’를 完成하기 前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das ‘Andorra’ meines nächsten Theaterstücks ist nicht mehr nicht weniger als das Modell einer Gemeinschaft, die mit sich selber nicht identisch ist.”⁶⁾

그런데 Frisch가 이 作品을 쓸 當時 유럽에서는 猶太人 問題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분위기와 ‘Andorra’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물론 文學 作品은 포괄적 內容과 意味를 담는다. 그러나 作品이 讀者에게 주는 直感的 印象이나 記憶은 무시될 수 없다. 事件 自體나 場所에 대한 직접적 言及이 없더라도 ‘안도라’는 觀客에게 猶太人 事件을 聯想시킨다는 點에서 ‘Zeitstück’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실제로 문제가 된 내용을 다룬 드라마”⁷⁾라는 뜻에서 그렇다.

本稿에서는 이 作品의 主題가 되는 集團先入見과 自我的 Identität 問題 그리고 作品 技法으로서 증언대의 구실에 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2) Max Frisch, Andorra Einzelinterpretation. In: Wolfram Buddecke und Helmut Fuhrmann: Das deutschsprachige Drama seit 1945, (München 1981), S. 345.

Jürgen H. Petersen, Max Frisch, (Stuttgart 1978), S. 77 재인용.

3) Jürgen H. Petersen, S. 77 재인용 (den Namen für ein Modell)

4) Wolfram Buddecke u. Helmut Fuhrmann, S. 335. (……damit indirekt auch eine Änderung des praktischen Verhaltens gegenüber dem Original ermöglicht.)

5) Wolfram Buddecke u. Helmut Fuhrmann, S. 335. (überall)

6) Jürgen H. Petersen, S. 77. 재인용.

7) Gerhard Wahrig, Deutsches Wörterbuch, (München 1968), S. 4218, (Schauspiel, das aktuelle Fragen der Gegenwart behandelt.)

2.1 社會心理學的 意味에서의 先入見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 Barblin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얀 칠을 하고'(weißelt) 있고 教師는 Tischler와 얘기하는 도중에 '기둥'(Pfahl)과 그 옆에 놓인 '뱃줄'(Strick)을 發見하고 그것들을 "무엇에 쓸려고 그러는지"⁸⁾ 疑問을 표시한다. 이와 같은 묘사에서 觀客은 처음부터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⁹⁾는 豫感を 받는다. 그 豫感은 Andri가 이제는 '부엌 심부름꾼'(Küchenjunge)이 아니라 목수가 될 것이라고 기쁨과 기대에 차서 환호하는 獨白에 이르르면, 더더욱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破局이나 沒落으로 치달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안드리는 유독 Tischler라는 職業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크다.

"Ich werde Tischler! Die Sonne scheint grün in den Bäumen heut. Heut läuten die Glocken auch für mich. Später werde ich immer denken, daß ich jetzt gejauchzt habe. Dabei zieh ich bloß meine Schürze ab, ich staune, wie still. Man möchte seinen Namen in die Luft werfen wie eine Mütze, und dabei steh ich nur da und rolle meine Schürze. So ist Glück. Nie werde ich vergessen, wie ich jetzt hier stehe..."¹⁰⁾

안드리는 自身이 教師의 양아들이며 그의 친절한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드리는 教師의 結婚 前에 얻은 親子인데 教師는 그 事實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장한다. Schwarzen에 의해서 猶太人이 학살될 때 안드리는 변경 근처에서 구해진 猶太人의 아이라고 안도라 사람들을 欺瞞한다. 이로 인해서 教師 自身은 그들로 부터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認定받는 대신에 안드리는 異質的 存在로써 사람들로 부터 멸시받다가 結局은 그들의 속죄양이 된다.

안도라 사람들은 猶太人에 대한 感情이 敵對的이다. 특별한 理由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할 뿐이다. 이 作品에서는 그들이 猶太人을 싫어했다는 點만이 表現되어 있다.

"Nicht warum die Andorraner antisemitisch reagieren, wird erörtert, sondern auf welche Weise sie es tun."¹¹⁾

反猶太主義의 代表的 人物은 제 1장면에서 부터 나타난다. 教師가 Tischler인 Prader에게 안드리를 맡아서 技術을 가르쳐줄 것을 부탁했을 때 그는 비싼 講義料을 要求한다. 그것은 안드리가 猶太人이기 때문에 목수가 될 素質이 없다고 判斷하고 또 그 分野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Prader는 教師에게 안드리의 適性은 목수가 아니라 商人이 되는데 있다고 얘기한다.

"Wieso will er grad Tischler werden? Tischler werden, das ist nicht einfach, wenn's einer nicht

8) Max Frisch, Andorra, (Frankfurt a. M. 1961), S. 16, (Zu welchem Zweck?)

9) Joachim Kaiser, S. 613. (Furchtbares wird geschehen.)

10) Andorra, S. 18.

11) Joachim Kaiser, S. 615.

im Blut hat. Und woher soll er's im Blut haben? Ich meine ja bloß. Warum nicht Makler? Zum Beispiel. Warum nicht geht er zur Börse? Ich meine ja bloß."¹²⁾

이러한 Prader의 意見에도 불구하고 教師는 要求받은 금액을 모아서 안드리가 Tischler가 되는 것을 돕는다. 안드리가 그 實績을 받는데 처음으로 Prader에게 의자를 檢査받는데 동료 수련생의 의자를 안드리의 것으로 잘못 審査받게 되자 안드리는 의자가 바뀌었음을 抗議한다. 그러나 Prader는 다리가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진 동료 수련생의 의자를 안드리의 것으로 斷定지어 버린다. 이러한 Prader의 생각과 態度에서 그가 얼마나 猶太人에 대한 偏見과 反感이 극심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Geselle의 否認은 그의 偏見과 오해를 부채질 하고 있다. Prader는 단호하게 안드리에게는 기술자가 아니라 장사꾼이 어울린다고 判斷내리고 그에게서 修練의 機會를 박탈해 버린다.

“Ich habe eine andere Arbeit für dich. Zieh deine Schürze aus! Ich zeige dir, wie man Bestellungen schreibt. Hörst du zu, wenn dein Meister spricht? Für jede Bestellung, die du hereinbringst mit deiner Schnorrerei, verdienst du ein halbes Pfund. Sagen wir: ein ganzes Pfund für drei Bestellungen. Ein ganzes Pfund! Das ist's was deinesgleichen im Blut hat, glaub mir, und jedermann soll tun, was er im Blut hat. Du kannst Geld verdienen, Andri, Geld, viel Geld ”¹³⁾

Prader 못지 않게 軍人 Peider 역시 猶太人은 돈만을 重要하게 여기는 ‘비겁한’(feig) 者라고 규정 짓고 Andri가 “猶太人이기 때문에”¹⁴⁾ 그렇다고 말한다. Peider의 생각은 간단하다. 안드리는 그들과 다른 集團이기 때문에 비겁하고 ‘불안’(Angst)이 많은 반면 안도라 사람들은 안도라인이기 때문에 自身이 있고 平和롭다고 생각한다.

술집 主人 역시 안드리는 ‘예외’(Ausnahme)의인 猶太人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도 다른 안도라인과 마찬가지로 反猶太主義 傾向을 지닌 사람이다.

네번 째 장면에 登場하는 의사는 猶太人에 대한 偏見이 더 심하다. 안드리를 診察하면서 무심코 猶太人의 나쁜 點은 그들의 功名心이라 얘기한다.

“In allen Ländern der Welt hocken sie auf allen Lehrstühlen, ich hab's erfahren, und unsereinem bleibt nichts andres übrig als die Heimat.”¹⁵⁾

다시 말하면 猶太人은 無分別한 名譽心을 추구하고 있다고 非難을 퍼붓지만 事實은 의사 自身이 學問的 業績을 쌓지 못하고 挫折한 劣等 意識과 故郷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던 自身을 合理化시키면서, 아울러 그러한 野望을 성취하고자 努力하는 사람들을 공격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非難한다.

12) ebd., S. 13.

13) ebd., S. 35.

14) ebd., S. 22. (Weil du Jud bist)

15) ebd., S. 40.

"Ich kenne den Jud. Wo man hinkommt, da hockt er schon, der alles besser weiß, und du, ein schlichter Andorraner kannst einpacken."¹⁶⁾

의사는 이러한 自身の 偏見에서 벗어난 人間인체 허세도 부러본다.

"Dabei habe ich nichts gegen den Jud."¹⁷⁾

그러나 그의 先入見은 挫折과 그로 인한 공격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Doktor, Peider, Prader, Wirt 모두 反猶太主義의 偏見을 지닌 典型的인 사람들이다. 이들 이외에 Pater 역시 이러한 안도라 사람들의 傾向에 동조하고 있다.

일곱번 째 장면에서 신부는 안드리더러 사람들이 말하는데로 自身을 猶太人으로 받아드리도록 권유한다.

"Wir müssen uns selbst annehmen, und das ist es, Andri, was du nicht tust. Warum willst du sein wie die andern? ...Wieso willst du's nicht wahrhaben? 's ist ein Funke in dir. Du denkst. Warum soll's nicht auch Geschöpfe geben, die mehr Verstand haben als Gefühl? ...Denkt an Einstein! Und wie sie alle heißen. Spinoza!"¹⁸⁾

그런데 이들이 讚揚하는 自由롭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慣習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들은 안드리를 他集團으로써 疎外시키고 排斥한다. 그들은 自身들의 劣等感 때문에 양심에 거슬리는 일, 때로는 內的 갈등을 회피하면서 自我 批判없이 무조건 他集團을 공격하고 非難한다. 여기서 한 集團과 다른 集團 사이의 敵對 關係가 성립되어서 안도라 사람들은 좋고 정당하며, 다른 集團은 그 反對가 된다. 다시 말하면 單一化 現象이 일어나서 같은 集團이 아닌 他 集團을 排斥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흑백의 論理만 可能的 社會가 생겨나고 그 社會는 生動感이 없고, 先入見이 지배하는 획일적 社會로 轉落하게 된다.

이 作品에서는 안도라 사람들이 認定하고 싶지 않은 人間 屬性을 他 集團인 안드리에게 轉家시켜 버린다. 그들도 猶太人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호색적이기도 하고 비겁하고 感情이 메말라 있기도 하다. 그런데 유독 Andri만이 그러한 特性을 가진 代表 人物이며 그 典型으로서 간주된다. 이런 點에서 이 作品은 "사회심리학적 연구 대상"¹⁹⁾으로써 합당하다. 즉 人間 社會에 膾炙한 先入見의 속성 및 그 폐해가 어떠한지 이 作品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다.

集團 先入見에 빠져 있는 안도라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더 강한"²⁰⁾ 사람들이다. 윗 나라에 사는

16) ebd., S. 40.

17) ebd., S. 40.

18) ebd., S. 63-64.

19) Wolfram Buddecke und Helmut Fuhrmann, S. 338. (, einem wichtigen Untersuchungsgegenstand der Sozialpsychologie.)

20) ebd., S. 35, (Wieso seid ihr stärker als die Wahrheit?)

Schwarzen이 안도라 自體를 공격하기 보다는 猶太人 索出에 觀心을 보이자 안드리를 그들의 속죄 양으로 내세운다. 猶太人 審査를 받을 때 Andri는 猶太人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Andri는 自身을 猶太人으로 認定하고 난 後였기 때문에 猶太人으로서의 運命을 選擇한다.

안도라 사람들은 Andri의 죽음에 責任이 있다. 集團 偏見과 妄想이 한 個人의 죽음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集團이 져야하는 責任과 罪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罪가 모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언대에 섰을 때 각기 自身들은 罪가 없다고 主張한다.

“Ich bin nicht schuld.”²¹⁾

이 言語의 反復은 도리어 罪가 있다는 印象을 強하게 할 뿐이다. 다만 神父는 예외다. 처음에는 Andri더러 猶太人임을 받아드리도록 說得했으나 나중에 그가 教師의 親子息임을 알게 되자 그 眞實을 알려주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안드리의 완강한 否定的 態度에 의해서 挫折된다. 이 때 안드리는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지고 있느냐”²²⁾고 반문한다.

이들은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즉 이들은 안도라의 優越性을 고집하는 면에서 같은 段階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純粹하게 行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規範속에 묶인 채 각기 職業의 典型的 代表로써 存在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의 自我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虛像의 自我속에 안주해서 自身들을 고집한다. 이들은 오직 “국수주의적 자만심”²³⁾을 가지고 行動한다.

예를 들면 Tischler가 되는 것은 가장 안도라인 담다고 의사가 얘기한다.

“Tischler ist ein schöner Beruf, ein andorranischer Beruf, nirgends in der Welt gibt es so gute Tischler wie in Andorra, das ist bekannt.”²⁴⁾

그러면서 계속 안도라의 우월성을 고집한다.

“Andorra ist eine Republik, das hab ich ihnen in der ganzen Welt gesagt: Nehmt euch ein Beispiel dran! Bei uns gilt ein jeder, was er ist. Warum bin ich zurückgekommen, meinen Sie, nach zwanzig Jahren?”²⁵⁾

Peider는 軍人답게 군대의 德을 證明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Ein Andorraner ist nicht feig. Sollen sie kommen mit ihren Fallschirmen wie die Heuschrecken

21) ebd., S. 24.

22) ebd., S. 85. (Wie viele Wahrheiten habt ihr?)

23) Manfred Jurgensen, Max Frisch die Dramen, (München 1976), S. 86. (.....die Arroganz ihres Nationalstolzes)

24) ebd., S. 38.

25) ebd., S. 38.

vom Himmel herab, da kommen sie nicht durch, so wahr ich Peider heiße, bei mir nicht."²⁶⁾

軍人は “마지막 한 사람까지”²⁷⁾ 안도라인을 위해서 싸운다고 다짐한다. 이들은 모두 그들 故郷에 대해서 虛像을 가지고 있다.

“Andorra ist ein schönes Land, aber ein armes Land. Ein friedliches Land, ein schwaches Land— ein frommes Land.”²⁸⁾

그런데 Schwarzen이 侵入해 왔을 때 그들은 自身들이 표방하고 나섰던 愛國心이나 안도라인의 勇감성이나 優越性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消極的으로 안드리를 희생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들의 受動的인 姿勢는 모두들 검은 수건을 쓰고 나누는 市民들의 對話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Schwarzen이 써 놓은 ‘노란색 플래카드’(das gelbe Plakat)의 指示內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다. 한번 휘파람을 불면 ‘구두를 벗고’(Schuh aus), 두번 불면 ‘행진하고’(marschieren), 세번 불면 ‘수건을 벗는다’(Tuch ab).

猶太人 審査는 審査로서의 적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걸음걸이 혹은 動作등에서 猶太人을 가려내는 表現은 오히려 現實性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3제국의 猶太人 索出은 皇당 무계하게 이뤄졌었기 때문에 觀客에게 이러한 表現은 더 큰 感動을 준다. 더구나 Judenschauer가 말없이 몇 가지 動作만으로 猶太人을 가려내는 審査 過程은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다. 그의 침묵은 안도라 사람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受動的으로 만든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先入見은 오해로 인해서 더욱 힘을 발휘한다. 教師의 거짓이 결국 안도라 사람들의 誤解를 낳게 했고 그것은 偏見과 합쳐지면서 強力한 위력을 휘둘러 先入見에 사로잡히지 않은 活氣에 찬 한 個人을 파멸시키고 만다. Frisch는 오해와 先入見이 서로 보완되는 점을 지적했다.

“Die freundlichste Form, die dieses Vorurteil annehmen mag, dürfte das Mißverständnis sein.”²⁹⁾

안드리의 沒落은 誤解로 비롯된 것인데, 結局 “오해가 집단 선입견을 문제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뒷받침”³⁰⁾ 해줬다. Frisch는 이 作品을 통해서 先入見의 危險과 끔찍스러운 結果를 보여주는 한편 集團이 빠져들기 쉬운 無分別을 “도덕적으로 탄핵”³¹⁾하고 있다.

26) ebd., S. 22.

27) ebd., S. 19. (Bis zum letzten Mann)

28) ebd., S. 11.

29) Franz Norbert Mennemeier, Modernes Deutsches Drama 2. (München 1975), S. 176. 재인용.

30) Jürgen H. Petersen, S. 76. (… das [Mißverständnis] das Rassenvorurteil mehr bekräftige als in Frage ziehe.)

31) Siegfried Kienzle, Otto C. A. zur Nedden, Karl H. Ruppel, Reclams Schauspielführer, (Stuttgart 1983), S. 953. (…seine moralische Anklage…)

2.2 Identität의 問題

證言臺의 陳述을 통해서 보면 안도라 사람들은 自身들이 先入見에 빠져있다는 點을 모르지만 觀客은 이들이 偏見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과 對立되는 位置에 안드리를 비롯해서 Barblin, der Lehrer, die Mutter 그리고 die Senora를 놓을 수 있다. 一次의인 뜻에서 보면 안도라 사람들은 證人으로 나오지만 이들은 證人으로 登場하지 않는 點을 들 수 있고, 더 깊은 意味로는 이들은 안도라 사람들과는 달리 自我의 Identität를 찾아서 努力하는 點 때문에 그들과 對立된 位置에 놓을 수 있다.

“Hier entfalten sich fünf Gestalten auf der Suche nach ihrer wahrhaftigen Identität.”³²⁾

이들 다섯 사람은 모두 다 二重의 自我가 있다. Andri는 안도라인인 동시에 猶太人이며, Barblin은 여동생인 동시에 愛人이고, Lehrer는 안드리의 親父임과 동시에 後見人이고, Mutter는 안드리의 양어머니인 동시에 안드리와 血緣 關係가 없는 他人이며, Senora는 Schwarzen 사람이면서 안드리의 親母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二重 構造속에서 그들의 關係는 쉽게 풀릴 수 없다.

처음에 Andri는 周邊世界가 그에 대한 像을 만들고 그것과 同質的으로 行動하도록 強要해올 때 意識的으로 그 制限된 存在의 役割을 벗어나려고 努力한다. 또한 안드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써 認定받기를 희망하면서 끊임없이 그들 社會속에서 自身의 位置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쓴다.

두 번째 장면에서 Barblin이 안드리를 유혹한다.

“Warum gibst du mir keinen Kuß?/ Barblin...löst ihre Haare..... Barblin zieht ihre Bluse aus.”³³⁾

그러나 안드리는 냉담한 反應을 보인채 自身의 근심에만 빠져있다. 그의 對答은 마치 獨白처럼 울리면서 계속 自身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몰두되어 있다.

“Ich bin wach, Barblin, ich denke./ Ob's wahr ist, was die andern sagen./ Findest du, sie haben recht?/ Vielleicht haben sie recht./ Meinesgleichen, sagen sie, hat kein Gefühl.”³⁴⁾

Andri는 그들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自虐하면서 自我에 대한 確信이 弱해져간다. 그러면 서도 自身의 存在가 “무엇 때문에 안도라 사람들과 다르지”³⁵⁾ 의아스러워한다. 이 點에서 Andri는 그들의 先入見과는 달리 他人 및 自己 自身에 對해서 像을 가지고 있지 않다. 自由로운 個體의 모습으로 社會와 마주해서 그 社會의 同質的 구성원의 한 자리를 찾고 있다.

32) Manfred Jurgensen, S. 85.

33) ebd., S. 25.

34) ebd., S. 25.

35) ebd., S. 27. (, wieso ich anders bin als alle.)

네 번째 장면에서 안드리는 Tischler가 되고 싶었던 所望이 挫折되고 더구나 Barblin과 結婚하고 싶던 기대도 敎師로부터 拒絕당한다. 둘 다 그 理由는 猶太人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드리가 스스로 猶太人임을 더욱 확고하게 認定해버리는데 Barblin과 Peider의 關係가 크게 作用한다. 그들의 關係를 알고 난 Andri는 마지막 所望까지 다 잃게되자, 지금까지는 안도라 사람들과 自身이 다른 點에 승복하지 않다가 이제는 스스로 周邊 世界가 요구하는 異質의 存在로서의 役割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안드리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悲劇的 主人公으로 變化된다. 지금까지는 나약하고 消極的으로 안도라 사람들이 그에게 부여하는 役割을 否定해오다가, 이 時點에 이르러서는 古代 희랍 悲劇의 主人公 '외디푸스왕'처럼 悲劇的 人物로 變化된다. 즉 平凡한 人物에서 非凡한 人物로 바뀐다. Andri는 自身の 運命을 그의 先祖인 猶太民族의 그것처럼 희생과 순교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Ich weiß, wer meine Vorfahren sind. Tausende und Hunderttausende sind gestorben am Pfahl, ihr Schicksal ist mein Schicksal."³⁶⁾

猶太民族의 運命이 안드리 自身の 運命과 일치되고 이제는 關照적 자세에서 能動的으로 自身の 運命을 맞이한다.

"Ich möchte, daß es bald geschehe. Ich bin alt. Meine Zuversicht ist ausgefallen, eine um die andere wie Zähne. Ich habe gejauchzt, die Sonne schien grün in den Bäumen, ich habe meinen Namen in die Lüfte geworden wie eine Mütze, die niemand gehört... und so werde ich stürzen."³⁷⁾

결국 Andri는 거짓 自我를 받아들이고 이에 屈服하고 만 셈이다. 즉 社會의 偏見과 誤解로 인해서 自我가 分裂되서 Identität를 상실한 것이다.

여기에 Andri의 아버지 Lehrer의 欺瞞이 그 한 몫을 담당했다. 안드리가 그의 親子임을 밝히려 했을 때 이미 그 自身이 猶太人임을 받아들이고 난 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는 眞實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敎師가 안드리의 結婚 戒의를 반대할 때 그 拒絕 理由를 밝혔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敎師는 안드리가 自身の 생각대로 믿도록 放任해 버린다. 그는 안드리와 自身の 種族앞에 용감하게 眞實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침묵해버렸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後에 갑자기 Schwarzen 사람인 Senora가 나타나서 敎師에게 眞實을 밝히도록 종용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Andri가 그녀의 아들임을 밝히거나 혹은 敎師가 그의 아버지임을 確認시켜 주지 못한 채 間接的으로 敎師에게 그 要求를 재촉한다. 안드리에게는 다음과 같이 위로한다.

"und du, Andri, bist der einzige hier, der die Wahrheit nicht zu fürchten braucht."³⁸⁾

36) ebd., S. 95.

37) ebd., S. 87.

38) ebd., S. 79.

Senora의 이 말과 나중에 Schwarzen이 侵入해 왔을 때 확장기를 통해서 흘러 나왔던 말은 對照的이다.

“KEIN ANDORRANER HAT ETWAS ZU FÜRCHTEN.”³⁹⁾

이 말은 Andri를 겨냥해서 안도라 사람이라면 두려울 일이 없지만 안도라 사람이 아니면, 즉 안드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教師와 Senora의 關係에서 줄거리의 비약이 생긴다. 우선 教師가 Andri의 結婚 提議를 拒絕할 때 그 반대 理由를 밝히지 않고 回避해버린 點 그리고 Senora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단순히 안도라인에게 殺害의 기회를 준 點 以上の 役割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 20年 동안 그녀는 教師에게 편지를 써왔다고 하지만 그 便紙에 대한 구체적 內容이 言及되지 않음으로써 觀客은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가령 그녀는 그동안 內的 갈등을 겪다가 드디어 眞實을 밝히고 싶은 욕심에서 危險을 무릅쓰고 안도라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偶然的 생각 말고 Senora가 꼭 20年 만에 教師를 찾아올 수 밖에 없는 必然性이 결여된 점에서 줄거리 비약이 생긴다.

어쨌든 教師나 Senora는 自我的 Identität를 찾으려고 努力했으며 결국 教師는 안드리의 죽음을 목격하고 挫折해서 목매달고 죽고 만다. Senora는 안도라 사람에 의해서 打殺되지만 그들은 眞實을 밝히고 안드리의 진정한 自我 回復과 社會의 그릇된 虛像을 부수려고 애썼다.

Barblin은 Andri를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온 Peider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바로 이 點에서 바브린은 처음에는 Andri를 愛人으로써 사랑했으나 아버지로 부터 그녀의 結婚이 拒絕될 때 Andri가 그녀의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不安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Peider의 侵入를 막아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바브린은 삶에 대한 信賴가 무너지고 軍人の 희생물이 된다. 그녀는 안드리로 부터 'Soldatenbraut'라고 모욕당하면서도 곁에서 Andri의 絶望을 감수한다.

이들 家族인 Mutter는 비교적 眞實을 가까이 접하고 살았다. Andri가 教師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神父를 통해서 積極적으로 안드리를 說得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 挫折된다. 그러나 그녀 역시 처음에는 안드리를 自身들과는 다른 存在로 생각해서 後見人 노릇에 滿足했다. 안드리가 바브린을 어릴 때 부터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고는 成年이 되어서 안드리가 結婚 提議를 했을 때 유일하게 그것에 贊成하려고 했다. 그런데 教師의 拒絕에서 事實을 알아챈 어머니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努力하지만 허사로 끝난다.

이들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社會라는 거대한 組織的 움직임 속에서 個體로서의 그들 自我는 分裂되고 破壞되고 말지만 그들이 自我를 찾는 努力을 계속했다는 點에서 강한 사람들이다. 안도라 사람들은 진정한 自身들의 모습은 감추고 그 職分에 합당한 典型의 人物임에 비해서 이들은 그 반대로 自我 追求를 했다는 點에서 안도라인과는 對立的 存在들이다.

특히 안드리는 그 社會의 속죄양이 되고 말지만 어떤 意味에서는 그 自身 스스로 거짓 自我를 意

39) ebd., S. 92.

識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초래된 어쩔 수 없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드리의 끔찍한 죽음은 “자실 행위로 규정될 수”⁴⁰⁾도 있다. 그의 自我中心的 思考方式의 結果로서 異質의 存在에 대한 의심을 끊어버리고 異質의 存在, 즉 그릇된 自我를 받아들인다. 教師가 안드리에게 그의 自息 息음을 說得할 때 “자식 스스로 아버지를 택할 수는 없다”⁴¹⁾고 얘기했지만 안드리는 그 眞實을 認定하기를 거부한다. 眞實은 眞實 그 自體로서 유일한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그릇된 自我를 고집한다.

“Das könnt ihr nicht machen mit mir.”⁴²⁾

Andri는 안도라 사람들의 꼭두각시로서 그들이 원하는 役割을 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꼭두각시로 취급해서 自身들의 虛像에 따라서 行動하도록 놔둔다. 안드리가 아홉번 째 장면에서 神 父에게 抗議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Alle benehmen sich heut wie Marionetten, wenn die Fäden durcheinander sind, auch Sie, Hochwürden.”⁴³⁾

실이 서로 뒤엉킨 꼭두각시들이 안도라인이라면 그것을 調節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藝術家, 즉 안드리가 그 힘이다. 藝術家처럼 Andri는 社會속에서 個體의 모습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꼭두각시들의 社會와는 對立될 수 밖에 없다. 이런 意味에서 “사회는 꼭두각시를 조각하는 그의 재료로 남아 있다.”⁴⁴⁾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人間의 偏見은 반드시 나쁜 結果를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他人이나 他人의 그룹에 대해서 客觀的 認識이나 體驗없이 判斷해버리는 先入見의 特性은 社會을 單一化 혹은 劃一化시킨다. Frisch는 ‘Du sollst dir kein Bildnis machen’의 귀절을 人間 社會에 적용시켜서 他人에 대해서 虛像을 만들고 그에 알맞는 役割을 要求하게 되는 것을 批判하면서 他人에 대한 虛像을 만들지 않도록 ‘안도라’의 敎訓의 비유를 들어서 경고한다. 즉 人間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像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虛像을 만들게 되는 人間 屬性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自我를 찾는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虛像을 克服하는 길은 사랑 뿐이라고 보았다.

“...Ausgenommen wenn wir lieben.”⁴⁵⁾

40) Jürgen H. Petersen, S. 76. (als Selbstmord bezeichnet werden.)

41) ebd., S. 93. (Man kann sich sein Vater nicht wählen.)

42) ebd., S. 85.

43) ebd., S. 83.

44) Manfred Jurgensen, S. 80-81. (...bleibt sie sein Material, aus dem er sich Marionetten schnitzt.)

45) Jürgen H. Petersen, S. 77. 재인용.

2.3 叙事的 技法 克服

각 장면이 끝난 後에 안도라 사람들 Wirt, Tischler, Geselle, Soldat, Pater, Jemand, Doktor가 차례로 한 사람씩 무대 앞쪽에 있는 證言臺에 서서 回顧的으로 안드리 事件을 얘기하면서 神父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自身들은 잘못이 없다고 主張한다.

'Ich bin nicht schuld'라는 文章이 주요 모티브로서 反復된다. 그런데 이러한 表現은 제 3帝國의 終末 以後에 흔히 사용하던 責實 回避의 말과 유사하다.

"Ich bestreite keineswegs, daß wir sozusagen einer gewissen Aktualität erlegen sind..... Was hat unsereiner denn eigentlich getan? Überhaupt nichts!"⁴⁶⁾

일곱 사람의 證人 陳述의 插入은 브레히트의 叙事的 技法의 性格을 띠고 있다. 두 번째 장면 앞에서 술집 主人의 陳述은 作品의 줄거리가 다 進行되기도 前에 갑자기 그 事件을 回想하면서 自身の 立場을 밝힌다. 이로 인해서 觀客은 이 劇의 結末을 짐작케된다. 그런데 이러한 證人들 陳述은 원래의 줄거리의 흐름을 中斷하는 形式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中斷은 도리어 劇的 事件의 效果를 더 크게 한다.

證人 陳述은 무대 위에서 전개되는 줄거리로부터 觀客을 메어놓기 위해서 插入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다시 접촉"⁴⁷⁾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안도라의 사람들은 관객석에 재판관이 아니라 證人"⁴⁸⁾으로서 다 같이 演劇에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觀客이 裁判官이 아니라 證人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 時代의 問題를 함께 批判하고 反省하는 意味가 있다. 責무기의 危險속에 살고 있는 지금 時代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질렀던 歷史의 時代가 있었다. Frisch는 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Die Zeit verwandelt uns nicht. Sie entfaltet uns nur."⁴⁹⁾

劇의 줄거리를 進行하던 배우들이 돌연 證言臺에 서 있다. 이러한 순간적 停止는 그들이 批評的 解說者로서 劇의 줄거리를 批評하거나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劇 줄거리의 部分을 完結한다. 즉 證人 陳述은 줄거리의 흐름과 分離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劇的 事件을 強化시키는 役割을 한다. 다음과 같은 例에서 뚜렷하다.

46) Reclams Schauspielführer, S. 953.

47) Manfred Jurgensen, S. 83.(, werden die andorranischen Zeugen erneut mit geschichtlichen Ereignissen in Berührung gebraucht.)

48) Manfred Jurgensen, S. 83. (Die Andorraner sitzen im Parkett, nicht Richter, sondern ebenfalls Zeugen...)

49) Hans mayer, Über Friedrich Dürrenmatt und Max Frisch, (Weinsberg 1977), S. 104.

세 번째 장면에서 수련생인 Ferdi가 안드리에게 友情을 보였다가 여덟 번째 장면에서는 느닷없이 軍人 Peider의 親舊가 되어서 안드리를 “뒤에서 발로 찬다.”⁵⁰⁾ 그 사이에 Geselle의 陳述이 插入되는데 이것은 줄거리의 正確性和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s war mein Stuhl und nicht sein Stuhl. Damals. Ich wollte ja nachher mit ihm reden,...
Nachher hab ich ihn auch nicht mehr leiden können, geb ich zu.”⁵¹⁾

위의 例에서 보듯이 證人 陳述은 줄거리를 進行하는 人物들의 性格 이해와 作品의 論理的 構造를 위해서 적절하다.

“Die Zeugenaussagen ‘verfremden’ auch nicht das dramatische Geschehen, sondern vergrößern eher dessen Wirkung.”⁵²⁾

證人 陳述은 줄거리를 批評하는 것이 아니라 劇의 줄거리에 의해서 批評된다. 劇의 줄거리를 다 본 觀客들은, 이 證인들이 僞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당연히 그들은 안드리의 犧牲에 責任이 있다. 이 陳述의 效果는 觀客들에게 批評的 자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觀察者로 만든다.

이런 點에서 Brecht의 叙事劇의 技法을 뛰어넘어서 발전된 技法이다. Brecht의 叙事劇은 劇의 줄거리를 疎外시키는 技法으로 批評的 解說者나 합창 등을 插入시켜서 觀客과 줄거리 사이에 疎外 效果를 일으켜서 觀客이 劇中 人物이나 줄거리에 同化되거나 一致되는 것을 막고 觀客으로 하여금 批評的 자세를 얻도록 해준다. Brecht는 맑스主義의 意味에서 社會 關係가 變化되는 點을 重要하게 여겼으며 “그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해서 관객은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끌어내야 한다.”⁵³⁾고 생각한다.

Brecht는 변증법을 劇 理論에 도입해서 무대는 命題와 反命題의 緊張이 부여되고 마지막으로 綜合하는 일은 觀客에게 주어진다. 劇 줄거리가 命題라면 劇에 插入된 解說者나 합창 등은 反命題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距離感으로 인해서 觀客은 劇에 몰입하지 않고 結論을 끌어내거나 解答를 찾을 수 있는 批評的 자세가 곧 綜合이다.

“Während Brechts Verfremdungseffekt den Menschen im Bewußtsein seiner Geschichtlichkeit bestärken und ihn in dieser seiner Geschichtlichkeit zu verantwortlichem Handeln verpflichten will, sucht Frischs Spielbegriff eine Insel im Strom der Geschichtlichkeit zu errichten.”⁵⁴⁾

Brecht는 오늘날의 世界는 可變的이기는 하지만 무대를 통해서 模倣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50) ebd., S. 74. (einen Fußtritt von hinten)

51) ebd., S. 36.

52) Manfred Jurgensen, S. 84.

53) Unter d. Leitung v. Gerhard Kwiatkowski: Schülerduden “Die Literatur”, (Mannheim 1980), S. 129. (Der Zuschauer soll mit einer veränderlichen Welt konfrontiert werden und daraus Konsequenzen für die eigene politische Entscheidung ziehen.)

54) Walter Hinck, Das moderne Drama in Deutschland, (Göttingen 1973), S. 178.

말하면 브레히트는 現實의 世界, 혹은 現存하는 世界가 아니라 맑스 理論에 입각한 假象의 世界가 그의 現實 世界이며 그것이 무대를 통해서 再現된다. 이것은 하나의 “Poesie”⁵⁵⁾이다.

반면에 Frisch에게는 現實 世界란 模倣될 수 없으며 演劇은 “이 세계의 모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존재”⁵⁶⁾한다. Frisch에게 있어서 現實이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 만큼 그것은 再現될 수 없는 “복잡한 현실”⁵⁷⁾이다. 그래서 演劇은 무대 위에서 더 나은 世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變化될 수 있는 世界를 만들 뿐이다. 그러나 演劇이 반드시 敎訓의 이어야 할 必要는 없다. 다만 演劇은 “역사성에 대한 인간의 자기 주장”⁵⁸⁾이며 社會에 “실질적 비평”⁵⁹⁾을 가할 수 있다.

Brecht는 演劇 作品을 통해서 結論을 유도하는 반면에 Frisch는 結論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이나 결론은 觀客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作品을 통해서 質問만 하지 답변하지 않는다.

“ Bewußt verzichtet er also auf Lösungsangebote……”⁶⁰⁾

Brecht의 叙事劇은 劇의 즐거리가 있고 그것을 批評적으로 說明하는 解說者가 있어서 觀客은 批評的 자세를 취하고 觀察者가 된다. 한편 Frisch의 演劇 技法은 劇의 즐거리가 있고, 오히려 그 즐거리가 解說者를 批評한다. 이 點이 Brecht의 叙事的 技法과 反對이다. Frisch의 證人 陳述 插入은 Brecht의 疎外 效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즐거리가 證人, 즉 해설자를 批評한다는 點에서 그 疎外 效果를 넘어서서 더 發展된 技法을 구축함으로써 브레히트의 技法을 극복해냈다.

끝으로 이 作品에서는 그림의 색채처럼 몇 가지 色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바브린은 성계오르그 축일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집 담에다 흰색을 페이트칠하고 있다. 깨끗한 마음으로 聖人을 讚美하기 위해서 ‘하얀, 눈처럼 하얀 안도라’(weißes……, schneeweißes Andorra)를 만들려고 애쓴다. 안도라 사람들은 自身들의 故郷에 긍지와 自負心을 가지고 있다.

“Andorra ist ein schönes Land, …Ein friedliches Land……ein frommes Land. ……Andorra ist ein kleines Land, aber ein freies Land.”⁶¹⁾

이러한 안도라에 반대되는 나라가 이웃에 사는 Schwarzen이다. 단순한 色의 對照보다도 안도라

55) Walter Hinck, S. 177.

56) Max Frisch, Der Auto und das Theater 1964. In: hrsg. v. Hans Mayer, Deutsche Literatur Kritik, S. 737. (Unser Spiel, verstanden als Antwort auf die Unabbildbarkeit der Welt.)

57) Max Frisch, S. 734. (die komplexe Realität)

58) Max Frisch, S. 737. (… eine Selbstbehauptung des Menschen gegen die Geschichtlichkeit.)

59) Manfred Jurgensen, S. 83. (…praktische Kritik…)

60) Jürgen H. Petersen, S. 80.

61) ebd., S. 11, S. 39.

人的 觀念속에 들어있는 主觀的 對照가 더 重要하다. 다시 말하면 안도라인은 경건하고 平和로운 民族인데 비해서 Schwarzen人은 支配的이고 공격적인 非理性的 民族이며 안도라인과는 다른 異質的 集團이다. 안도라는 이웃을 침략하지 않는 平和로운 나라인데, 이웃 나라에 사는 Senora가 이곳을 방문했을때 안도라인 누군가에 의해서 殺害된다. 그리고 그 잘못을 他集團으로 간주된 Andri에게 씌우지만, 그들은 僞善者다. 여기서 그들은 Schwarzen의 野蠻的이고 공격적 態度와 一致한다. 이것은 그들이 猶太人 審査를 받으러 나올 때, 검은 服裝을 한 Schwarzen의 軍人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수건을 쓰고 있는 點에서 찾아볼 수 있다.

“Sie ziehen die Tücher über den Kopf. ……., auch der Lehrer und die Mutter müssen ein schwarzes Tuch nehmen.”⁶²⁾

평소에 教師가 술 취하면 自身の 同鄉人에게 퍼붓던 말처럼 안도라 사람들은 “저 위에 사는 Schwarzen보다 나을 게 없다.”⁶³⁾

첫 번째 장면에서 神父가 지나가면서 바브린이 집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하자, 옆에 서 있던 軍人 Peider가 비꼰다.

“, das saut euch jedesmal die Tünche herab, als hätte man eine Sau drauf geschlachtet, eure schneeweiße Tünche von eurer schneeweißen Kirche.”⁶⁴⁾

깨끗한 흰 벽에서 動物이 打殺될 때 흘리는 鮮血은 바로 죄없는 누군가의 犧牲을 暗示한다. 결국 그것은 안드리의 犧牲이었다. 하얀 안도라 땅에 안드리의 붉은 피가 흘러져 있는 길바닥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미쳐버린 Barblin이 흰칠을 하고 있다. 바브린이 칠하는 흰색은 바로 안도라의 罪惡과 僞善을 물어버리기 위해서다.

이러한 色 이외에 “das gelbe Plakat”⁶⁵⁾ 및 축구팀에 입단하려면 안드리도 검은색 셔츠와 服裝이 必要하다.

“Ferner brauchst du natürlich schwarze Shirts und ein gelbes Tschersi, das ist klar, und gelbe Strümpfe natürlich.”⁶⁶⁾

그런데 Andri는 이 팀에 속할 機會도 주어지지 않은 채 犧牲된다. Andri의 純眞하고 先入見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을 weiß하다고 表現한다면 그것은 축구팀과 어울릴 수 없고 안도라 사람들 그리고 Schwarzen人과도 어울릴 수 없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깨끗하다고 主張하는 안도라인은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迫害했던 안드리가 도리어 깨끗하다.

62) ebd., S. 109, S. 112.

63) ebd., S. 10. (Wir sind nicht besser als die Schwarzen da drüben.)

64) ebd., S. 9.

65) ebd., S. 110.

66) ebd., S. 30.

지금까지의 色들은 色 自體가 가지고 있는 色의 느낌 뿐만 아니라 意味에 있어서도 對比되면서 作品의 主題를 돕고 있다. 이런 點에서 Frisch가 'Akt'라는 用語를 쓰지 않고 'Bild'라고 쓴 點이 타당하다. '안도라'는 12 Bilder로 이뤄진 作品이다.

3.0 結 論

Frisch는 이 作品을 통해서 他人에 대한 像을 만들고 그것에 합당한 役割을 要求할 때 빚어지는 悞단과 피해를 지적하고, 個人의 힘으로는 거대한 集團의 偏見에 직면해서 좌초할 수 밖에 없는 現代 社會에서 거짓 自我와 眞實한 自我가 서로 자리를 뒤바꾸게 됨으로써 破滅한다. 이러한 結果를 통해서 진정한 自我 追求와 先入見을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努力을 促求한다.

Zusammenfassung

Problem des Vorurteils und der Identität im Stück 'Andorra' von Max Frisch

Kim Hi - yuol

Das Stück 'Andorra' von Max Frisch wurde im Herbst 1961 abgeschlossen. Frisch schrieb die Skizze unter der Überschrift 'Der andorranische Jude' im Tagebuch 1946. Die Prosaskizze handelte von einem jungen Andorraner, den man für einen Juden hielt. Nicht der Jude steht im Mittelpunkt des Stücks 'Andorra', sondern Andorra, d.h. der Vorurteil der Andorraner und das Problem der Identität.

'Andorra' ist als "Modell" konzipiert und sei "überall". Im Ländchen Andorra täuscht der Lehrer seinen Mitbürgern vor, sein Sohn Andri sei ein jüdisches Pflegekind. Während alle Andorraner hier die Toleranz des Lehrers loben, machen sie Andri zum Prügeljungen. Als die fremde Senora bei einem Besuch getötet wird, gibt man zur Erleichterung Andri die Schuld. Andorra wird von den Schwarzen besetzt. Alle Bürger müssen sich der 'Judenschau' unterziehen. Andri wird für sie alle zum Opfer stigmatisiert und hingerichtet. Andris Untergang beruht auf einem Mißverständnis und einem Vorurteil der Andorraner.

Das Stück 'Andorra' besteht aus zwei Handlungsgruppen. Die erste Gruppe, der Andri, Barblin, der Lehrer, die Mutter und die Senora angehören, "entfaltet sich auf der Suche nach ihrer wahrhaftigen Identität" und steht in einer komplizierten Doppelbeziehung zueinander. Die übrigen Andorraner, Wirt, Tischler, Soldat, Geselle, Doktor, Pater und jemand gehören der zweiten Gruppe an. Sie alle werden kaum als echte Charaktere bezeichnet. Sie werden grundsätzlich als Typen betrachtet. Die Personen der ersten stehen ihnen gegenüber.

Vor die Zeugenschranke, die im Vordergrund steht, treten sieben Andorraner und erläutern zurückblickend ihr Verhalten. Abgesehen von Pater, behaupten sie alle, daß sie nicht schuld sind. Die Zeugenaussagen erweisen sich für das Verständnis der Handlung als notwendig. "Sie 'verfremden' auch nicht das dramatische Geschehen, sondern vergrößern eher dessen Wirkung." Hier kritisiert doch die vorangegangene Handlung den Zeugen. Mit dieser dramatischen Methode überwindet Frisch das epische Theater von B. Brecht.

Überdies trägt die Kontrast der Farben, d. h. weißes Andorra, Schwarzen, Andris Blut und das gelbe Plakat zum Thema dieses Stücks bei. Dabei handelt es sich nicht um einen deutlichen Kontrast der Farbe, sondern um einen subjektiven, eben um einen Kontrast in der Vorstellungswelt der Andorraner.

Dies Stück führt dem Zuschauer die Gefahr des Vorurteils vor Augen. Die Vorgänge in 'Andorra' sind ein Gleichnis für die Wirkungen des Vorurteils und auch für den Terror, mit dem Menschen in Rollen hineingezwungen werden, die dem Bild entsprechen, das sich andere von ihnen machen. Wir können uns vom Vorurteil befreien, wenn wir die wahrhaftige Identität suchen oder "wenn wir lieben."